〈2023학년도 전임교원 공개초빙 공고용〉

지원자를 위한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학과	환경안전공학과	초빙분야 (한글 및 영문)	자원 순환 및 에너지 안전 Resource circulation and energy safety
	교육	연구	산학				
☑	☐	☐	☐				

▪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환경안전공학 전공은 1982년 개설된 이후 40년 가까이 환경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환경과 안전 관련 모든 분야(대기환경, 수질, 신재생에너지, 환경바이오 소재, 화학안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4년 환경규제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6년에는 환경공학과에서 환경안전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인력 양성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 소재, 공정안전, 신재생에너지, 수처리, 대기환경 분야에서 신임교원 5명을 초빙하였으며, 학과 전체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신임교원 초빙에는 환경공학 분야인 자원 순환 및 에너지 안전 분야에 대한 전임교원 1인을 충원하여 학과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한다. 또한, 환경공학 전공의 기존 교수진 및 타 전공 분야와의 활발한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 단기 발전계획(5년; 2023~ 2027)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 연구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내외 환경 문제와 갈등, 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공동연구, 동북아 협력 등을 통한 아주대학교의 위상 제고에 일익을 담당코자 한다. 확고한 교육철학과 우수 연구력을 지닌 신임교원을 충원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며 환경 분야의 연구를 국내외적으로 주도한다. 특히, 자원 순환 및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나아가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도와 능동적, 창의적, 협동적 사회활동의 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신임 교원으로 하여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전공 내에서 교육·봉사와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교육 및 연구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우수한 교원의 초빙을 통해서 교육 및 연구 측면에서 국내외 상위 학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장기 발전계획 (10년; 2023 ~ 2032)

환경안전공학 전공의 장기적 발전계획 (향후 10년 이내)은 본교의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선도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아갈 수 있는 '다산형 인재 양성' 이라는 기조에 부응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통합적 환경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 수행 및 대형 과제 수주, 사회 및 산업 현장에서 창의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임교수 7명, 학부생은 학년 당 37명, 대학원생은 전일제 대학원생 30명 정도의 규모로 학과를 운영하며, 졸업생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 및 안전 연구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공의 위상을 제고한다.

▪ **신임교원 활용방안(기대 사항 등)**

• 전공 내 승진/재계약임용 기준

환경안전공학 전공의 승진/재임용/성과승격 기준은 공과대학에서 제시하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기준을 반영하여 전공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 공모분야 소개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라는 국가의 전략에 맞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며 자원순환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폐기물관리 연구 또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전공교육과 연구를 주도한다.